

醫術로 百姓 救한 許浚의 生涯

洪元植

韓醫學하면 大部分의 사람들은 許浚 또는 《東醫寶鑑》을 떠올릴 것이다. 그를 여기서 재삼 論한다는 것 自體가 새삼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韓國醫學史에서 그의 位置는 確固하다. 그가 世界醫學界에 끼친 貢獻을 생각해보면 그를 可히 韓國醫學者의 代表者로, 그의 冊 《東醫寶鑑》을 韓國醫學의 大名詞라고 指稱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許浚과 같이 醫學史에 큰 足跡을 남긴 人物에 對한 評價는 慎重을 기해야 한다. 許浚에 關한 이야기들은 TV드라마, 映畫, 教科書, 小說 등을 통해 多分히 神話의 形態로 우리들에게 傳達된 面이 없지 않다. 한 人物에 對한 神話는 一般的인 通念, 에피소드의인 野史, 蓋然性있는 推理 등을 材料로 한 虛構的 構成을 통해 꾸며진다. 神話는 歷史根據의 歪曲이라는 深刻한 問題를 惹起시켜, 보다 事實에 가까운 研究를 沮害시킬 憂慮가 있다. 神話化의 裏面에는 民族主義, 現代의 刻薄한 醫療現實에 바람직한 醫師象을 갖고 싶은 心理的 希求가 짙게 깔려있다.

許浚에 對한 研究는 여러가지 制約이 뒤따르겠지만, 드라마틱하게 추린 小說的인 要素를 排除하고, 보다 學問的이고 史實的인 資料에 依據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庶子 出身으로 崇祿大夫까지 올라

許浚의 生涯를 알려주는 資料는 너무나도 없다. 《朝鮮王朝實錄》의 一部와 當時人의 文集에서 아주 드물게 보이는 制限된 記事들 뿐이다.

그의 族譜를 들추어 보면, 許浚은 京畿道 陽川 公庵(現 서울 江西區 加陽洞)에서 1546年 11月 5日 아버지 許璿과 어머니 孫씨 사이에서 次男으로 出生한 것

으로 되어 있다. 原來 그의 祖上은 代代로 지체높은 武官의 家風을 이어왔지만, 不幸히도 그가 庶出이었기에, 當時 中人階級에 限하여 應試할 수 있었던 醫科에 志望하여 醫者의 길을 걷게 되었다.

許浚의 할아버지가 경상우수사를 오래 歷任하였고, 할머니가 진주 出身이었다는 事實 등을 綜合해 볼 때, 그는 少年時節을 慶尙道 山淸에서 보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어떠한 過程을 통해 醫學에 入門하여 工夫했는 지에 對한 事實的 資料도 別로 없지만, 몇몇 資料들을 綜合하여 볼 때, 그는 젊어서부터 名醫로 이름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宣祖 7年(1574)에 許浚은 醫科에 登科하여 王室에 勤務하기 始作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功績을 세워 여러 차례 鹿皮, 熟馬 등의 賞을 받았다. 賞뿐만 아니라 王의 特命으로 여러차례 昇進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事實들은 許浚이 名醫로서 王室의 寵愛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는 證據이다.

宣祖 25年(1592) 壬辰倭亂이 나서 義州까지 避亂을 갔을 때, 그는 王을 잘 輔弼하여, 돌아와서는 扈從功臣의 爵을 받았다. 이어 宣祖 34年(1601)에는 御醫 憲大夫知中樞府事의 爵을 받았고, 同 39年(1606)에는 陽平君 崇祿大夫로 奉하여 졌다. 이 官職은 醫官出身으로서는 最高의 벼슬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宣祖가 승하할 때에도 御醫로 入診하였고, 光海君 卽位 後에도 御醫의 우두머리로 內醫院에서 繼續 勤務하였다.

그의 出世는 반드시 順坦한 것 만은 아니었다. 當時 우리나라의 階級的 慣習으로는, 醫官은 良班이 아닌 中人에 屬해 있었다. 이러한 理由로 許浚에게 大臣들과 같은 行列인 ‘府君’의 號와 ‘輔國’의 벼슬을 주니, 王은 司諫院이나 司憲府의 反對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王은 여러번 이에 反對하였지만, 어찌할 수 없이 그 命을 取消하도록 했고, ‘輔國’은 그가 죽은 다음에 追贈하도록 하였다.

醫書 編纂에 獨步的인 能力 發揮

그는 官職으로만 成功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다른 醫官들과 달리 여러가지 뛰어난 著述을 남겼다. 《朝鮮王朝實錄》 1604年 7月 2日의 記事를 보면 宣祖가

“許浚은 諸書에 博通하고, 用藥에 老하며”라고 許浚을 높이 評價한 句節이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許浚은 醫書編纂에 獨步的이라고 할만한 能力을 發揮하였고, 또 그러한 能力을 認定 받았다.

壬辰倭亂 以前の 編輯書로는 高陽生의 《纂圖脈訣》을 再編輯한 《纂圖方論脈訣集成》(宣祖 14年, 1581), 盧重禮의 《胎產要錄》을 한글로 編纂한 《諺解胎產集要》(1519)와 《諺解救急方》(1519) 등이 있다.

壬辰倭亂이 끝난 1595年 國民들의 形便은 말이 아니었다. 全局은 荒廢할 대로 荒廢해져 飢餓와 疾病이 漫延하였다. 여기에 王은 너무 尠大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病을 취급한 醫學書의 必要를 切實히 느꼈다. 이러한 情況은 《東醫寶鑑》 李廷龜의 序文中에 宣祖大王의 敎示인 “가난한 村落과 都會地의 窮僻한 골목에는 醫藥이 없어서 夭折하는 者가 많도다. 우리나라에는 시골에서 나는 藥材가 많이 生産되는데도 사람들이 能히 알지 못하니, 마땅히 鄉名을 分類하고, 아울러 글로 써서 百姓들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라.” 라는 말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以前에 《醫方類取》(1444年 完成된 264冊의 尠大한 醫書)란 醫書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理由로 一般에게 널리 利用될 수 없어서 國家醫療機關이나 官署에만 配布된 先例에 對한 反省도 있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宣祖는 許浚으로 하여금, 太醫 楊禮壽 鄭礎 金應鐸 李命源 등과 함께 醫方新書의 編輯의 着手를 命한다. 그러나 다음해 丁酉再亂이 일어나 作業은 中斷되고, 參與했던 醫家들은 흩어지고 말았다. 이에 許浚은 宣祖가 提供한 內藏方書 五百卷을 받아 單獨으로 作業을 繼續했다. 避亂이었음에도 不具하고, 또 1608년에는 宣祖가 죽어 그 責任을 지고 1年間 귀양을 가게 된 일도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光海君 2年(1610)에 이를 完成하고 《東醫寶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東醫寶鑑》은 그 當時까지의 醫學知識을 總網羅하는 醫學百科辭典이다. 構成은 目次2卷 內景篇4卷(生理學, 內科中心), 外形篇 4卷(解剖學, 外科中心), 雜病篇 11卷(病理學, 婦人科, 小兒科中心), 湯液篇 3卷(藥物學中心), 針灸篇 1卷의 總 25卷으로 되어 있다.

《東醫寶鑑》이 光海君 5年(1613)에 처음 刊行된 後 中國·日本 等地에 傳하게 되어, 數次에 걸쳐 그 나라에서 版角을 보게 되었다. 아마 《東醫寶鑑》만

큼 韓國人의 著書로서 外國人에게 많이 임혀진 書籍도 別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理由는 이 冊의 天재적인 體系 및 科學的인 思考體系가 當時의 다른 方書보다 優秀하기 때문이다. 이 冊은 患者의 病을 中心으로 모든 項目들을 配列하고 그 項目에 맞는 處方을 出處와 함께 仔細히 提示하여 後世 醫員들의 系統的 研究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配慮도 아끼지 않았다.

《東醫寶鑑》을 編纂한 以後, 許浚은 《新纂癘瘟方》(1612年), 《癘疫神方》(1613) 등을 編纂하였다. 이 두 著書는 戰爭 後 漫延하고 있던 여러가지 流行性 傳染病 退治의 必要性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東醫寶鑑》이 完成된 後, 官職에서 隱退했지만, 이 두 傳染病書 등을 繼續 編纂해 내는 熱意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러한 事實은 그가 1615年 8月 13日 70世의 일기로 世上을 들 때까지 一生동안 學究的 분위기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治療보다 豫防爲主의 醫學理論體系 이득

朝鮮 中期 以後는 朝鮮을 包含한 東北亞 醫學界에 劉完素, 張從正, 李杲, 朱震亨((이상 金元四大家, 金元四大家란 金元時代에 出現한 四大醫學家로서 四種의 醫學流派를 指稱하는 말이기도 하다.)) 등의 學說이 混用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弊端을 낳고 있었던 時期이다. 이러한 弊端은 李廷龜의 《東醫寶鑑》序에 보면 잘 描寫되어 있다. “위로는 倉公과 越人으로부터 아래로는 劉完素, 張從正, 朱震亨, 李杲에 이르기까지 百家가 이어서 일어났으나, 論說이 어지러이 많고 緒餘를 표절하여 門戶를 다투어 세우므로 書冊은 더욱 많아졌으나 醫術은 더욱 어두어졌으니, 그것이 靈樞의 본뜻과 크게 差異 나지 않는 것이 드물다.”

金元四大家는 宋代의 運氣學說 研究實蹟 및 性理學의 研究實蹟을 밑바탕으로 하여, 臨床으로부터 出發하여 疾病의 變化規律에 대한 새로운 解釋을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解釋이 中國 最初의 醫學의 流派를 出現시켰다.

金元四大家는 크게 두 部類로 나눌수 있다. 하나는 北方사람들에게 適合한 寒涼한 藥을 爲主로 하는 劉完素 系列과, 汗吐下의 세 가지 方法을 爲主로 하는 張從正 系列인데, 이 두 系列을 後代에 各各 寒涼派, 功下派라고 불렀다. 다른

篇에는 南方사람들에게 適合한 脾胃를 補하는 李杲 系列과, 陰精을 補하는 治療法을 爲主로 하는 朱震亨 系列인데, 이 두 系列을 後代에 各各 補土派, 滋陰派라고 불렀다.

이 네가지 學說이 朝鮮으로 전달되었는데, 韓國의 風土, 體質 그리고 性理學의 尊崇 等의 理由 때문에, 朝鮮王朝에 適合한 李朱醫學(李杲, 朱震亨의 醫學思想)이 專門的인 支持를 받게 되었다.

李朱醫學이 朝鮮의 儒學者들이 추송하는 性理學과 軌를 같이 하여 크게 發展했지만, 그에 依한 弊端도 컸을 것이다. 《東醫寶鑑》이 古代 中國醫學으로부터 明나라 時代까지의 多様な 理論體系를 統合하여 一目瞭然한 體系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許浚이 이와 같은 弊端를 拂拭시키고 統一的인 醫學體系를 만들기 爲한 試圖의 얼매와 같은 것이다. 이와같은 獨創的인 試圖는 許浚 個人의 性理學에 대한 깊은 理解 때문에 可能했을 것이다.

《東醫寶鑑》의 特徵은 金元時代以後의 多様な 理論體系를 吸收統合한 데에도 있지만, 그가 가장 重視하는 內景篇의 篇名을 道家서적인 《黃庭經》에서 따왔든지, 첫 卷을 身形, 精, 氣, 神이라는 道家的 用語를 使用하여 構成한 것 等에도 있다. 이와같이 道家的 要素를 冊앞에 놓은 것은 治療보다는 豫防을 爲主로 하는 道家思想을 醫學理論에 具體的으로 實踐한 것이다.

韓國의 道教的 傳統은 古朝鮮 以前부터 固有信仰의 形態로 存在했던 神仙思想을 뿌리로 하고 있을 만큼 悠久하다. 道教醫學의 傳統은 確實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神仙思想 自體의 醫學과의 不可分性 및 道家的 要素가 強한 《黃帝內經》이라는 醫學書籍이 이미 高句麗 時代에 收入되어 잊혀졌다는 事實 等を 綜合해 보면 그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許浚이 集例에서 “道家는 그 精微를 얻고 있으나, 醫家는 그 粗雜함을 얻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許浚이 이와 같이 悠久한 道教醫學의 傳統속에서 醫學修業을 받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初期 編纂에 함께 參與했던 鄭瑄이 當時 道教에 對한 理解가 깊은 人物이었다는 點을보면, 그의 影響도 上當히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東醫寶鑑》이 性理學的 觀念을 바탕으로 하여 明나라 이전 醫學書籍을 體系的으로 再編輯한 것과, 治療보다는 豫防爲主의 醫學理論體系를 이룩한 것은, 그 由來를 中國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最初였다. 새로운 醫學體系를 이룩했다는

自負心은 그가 東醫라는 單語를 書名으로 붙이는데 使用한 自信感으로 나타냈다. 集例에 보면 東醫의 뜻을 밝혀 놓고 있다. “東垣은 北醫인데, 羅謙甫가 그의 法을 傳受받아 江浙에서 이름을 떨쳤으며, 丹溪는 南醫이다. 劉宗厚가 그의 學을 이어서 陝西에서 이름을 떨쳤다.……우리나라는 동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醫學의 道가 면면히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醫學도 가히 東醫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許浚醫學의 偉大性

許浚에 對한 評價는 慎重을 기해야 한다. 우리가 想像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資料는 드물다. 어설픈 想像力은 그에 對한 歪曲된 事實만을 造作할 뿐이다.

그에 關한 몇 안되는 資料를 살펴볼 때, 그는 治療面에서 뿐 만 아니라 學問 探究에서도 拔群의 能力을 發揮하였다. 그의 이와같은 能力은 宣祖에 依해서 높이 評價받게 되어, 《東醫寶鑑》이라는 不朽의 名著를 可能하게 해주었다.

그는 性理學에도 造詣가 깊었으며, 性理學에 대한 깊은 理解는 金元四大家學說을 中心으로 明以前의 醫學思想의 集大成을 이룩할 수 있게 해주었다.

朝鮮醫學의 道家的 傳統은 그 由來가 古朝鮮時代 以前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許浚은 이러한 道家的 傳統 속에서 醫學修業을 받았다, 그래서 東醫寶鑑의 道家的 色彩는 許浚 個人的 道家思想에 대한 깊은 理解를 反映해주고 있는 것이다.

性理學的 觀念을 바탕으로 하여 明以前의 醫學思想을 再編集한 것과, 治療보다는 豫防을 爲主로 하는 道家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醫學理論體系를 이룩한 것은, 그 由來를 찾아볼 수 없는 最初의 試圖였다. 最初의 試圖라는 自負心은 그가 ‘東醫’라는 單語를 自信있게 使用한 것에도 나타난다.

許浚이 한글을 多用하였다든지, 여러 傳染病書를 編纂하였다든지 하는 것은 後代의 民衆들에게 많은 惠澤을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醫門寶鑑》(1724년 周命新篇), 《濟衆新編》(1799년 康命吉篇), 《醫宗損益》, 《方藥合篇》(以上 黃道淵) 등 朝鮮後期에 民衆들과 가까이 位置했던 몇몇 書籍들의 母胎가 되었다는 것도 값진 일이다. 이 冊들은 《東醫寶鑑》의 龍大한 構成으로 因하여 생기는 穢점들을 매꾸어, 보다 簡便하게 使

用할 수 있도록 縮小 再編輯한 것들이다.

이와같은 書籍들이 韓國 韓醫學의 否定的 側面을 增幅시키기도 하였다. 너무 實用性에만 치우쳐 後代에 醫學을 깊이 工夫하지 않고 症狀에 따라 處方만 찾아 投藥하는 病幣의 原因을 提供하기도 하였다. 否定的 側面은 後代人들이 만들어 낸 弊端으로 許浚의 本旨와는 전혀 關係없는 것이다.

現在에도 東醫寶鑑이 中國, 日本 뿐만 아니라, 英譯까지 되어 유럽等地에서도 읽혀지고 있다는 事實은 그의 醫學의 偉大性을 나타내주는 證據가 아닐까?